

인도네시아의 무슬림-기독교도 관계의 변화: 말루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김형준**

- I. 들어가는 말
- II. 할마헤라 사건에 대한 사건 보도
- III. 무슬림과 기독교도의 충돌을 바라보는 시각
- VI. 이슬람의 변화와 종교 전쟁설
- V.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과 기독교도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공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최근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정부 뿐 아니라 대다수의 종교 단체, 시민 단체, 종교 지도자들은 두 종교도가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무슬림과 기독교도의 관계에 대한 지역적 수준의 연구 역시 유사한 연구 결과를 제시해왔다. 1950년대 족자까르따(Yogyakarta)의 농촌 지역을 연구했던 수마르요(Soemarjo)는 무슬림과 기독교도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갈등 없는 사회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기술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상황이 1960년대 동부 자바의 농촌 지역에서도 보고되었다 (Akkeren, 1970: 136). 1970년대에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중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KRF-99-003-B00045). 이 글을 읽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준 밤방, 울리, 조윤미,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부 자바에 거주하는 무슬림과 기독교도는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였고, 종교적 차이에 따른 차별이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Mohammad, 1979/1980:177). 이러한 단편적인 연구만으로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지만, 이 연구들은 종교적 차이가 비종교적인 영역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되지 않았고,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이후의 상황은 무슬림과 기독교도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관용과 화합의 정신이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기독교도가 무슬림을 유혹하여 개종시키려 한다는 원색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가 몇몇 이슬람 잡지에 정기적으로 게재되었다. 대중적인 종교 모임에서 일부 이슬람 지도자들은 기독교화(Kristenisasi; Christianization)와 무슬림의 삶에 대한 기독교도의 간섭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였다. 두 종교도간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기독교도와 교회에 대한 공격의 증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과 1998년 사이에 투석, 방화 혹은 파괴된 교회는 275곳에 달하였는데, 1965년부터 1994년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었던 교회는 239곳이었다 (Tahalele, 1998).

말루꾸(Maluku)에서 발생한 무슬림과 기독교도간의 충돌은 무슬림과 기독교도의 관계가 변화했음을 보다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¹⁾ 1999년에 시작되어 1년 이상 지속된 무슬림과 기독교도간의 충돌로 인해 수 천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엄청난 물질적인 손실이 초래되었으며, 극도로 긴장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두 종교도 사이의 긴장이 계속되던 1999년 12월, (北)말루꾸주 할마헤라(Halmahera) 섬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정부의 공식 보고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초기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인구 면에서 소수인 무슬림이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받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²⁾ 이러한 인구 분포상의 특징으로

- 1) 말루꾸는 암본섬과 할마헤라섬 그리고 주변의 많은 섬으로 구성된 지역이다. 1999년 10월 이전까지 행정구역상 말루꾸주에 속했으나, 이 후 암본섬을 중심으로 한 말루꾸주와 할마헤라섬을 중심으로 한 北말루꾸주(Maluku Utara)로 분리되었다. 이 글에서 말루꾸는 분리 이전의 지역을 통칭하는 지명으로 이용된다.
- 2) 1971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말루꾸 인구에서 무슬림 비율은 49%, 기독교도(개신교도와 가톨릭교도) 비율은 45.9%이었고, 1995년 통계에서 무슬림은 50%, 기독교도는 40.5%이었는데, 이는 무슬림 인구의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외부, 특히 자바지역과 술라웨지(Sulawesi)섬으로부터의 이주가 무슬림 인구 증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인해 할마헤라의 무슬림이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견해가 말루꾸 외부의 무슬림들에게 쉽게 수용되었다. 그 결과, 할마헤라 사건 이후 기독교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확산되었고, 기독교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화되었으며, 기독교도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무슬림과 기독교도의 충돌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빈번하게 이용되는 두 개의 설명틀을 검토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설명틀은 충돌에서 나타난 종교적 측면을 무시하며, 이러한 충돌을 비종교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반면, 두 번째 설명틀은 종교적 요인을 강조하며, 충돌을 야기한 세력으로서 기독교도를 비난한다. 2절과 3절의 분석 대상인 두 설명틀은 각기 '음모론'과 '종교 전쟁설'로 명명될 것이다. 4절에서는 지난 20여년간 인도네시아 이슬람에서 나타난 변화를 통해 종교 전쟁설의 등장을 사회종교적 맥락에서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슬람의 영향력이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인 영역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기독교도가 무슬림 공동체를 파괴하려 한다는 식의 부정적인 시각이 무슬림에게 보다 용이하게 수용될 종교적, 사회적 환경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은 종교 전쟁설이 공식적 담론에 등장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무슬림과 기독교도의 평화와 화합은 민주주의의 공고하나 경제적 안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상호이해와 노력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2절과 3절의 주요 분석 대상은 일간지와 잡지에 게재된 기사로서, 2000년 1

했으리라 추정된다. 말루꾸 지방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1969-1994년 사이에 71528명(1995년 인구의 3.4%)이 말루꾸로 이주했다고 하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무슬림이라 추측된다. 할마헤라섬이 속한 中할마헤라(Halmahera Tengah)도의 경우 무슬림 비중이 훨씬 높아서, 1995년 무슬림 인구는 80.6%, 기독교 인구는 19.4%이었다. 종교도간 충돌이 발생했던 갈렐라(Galela)郡의 종교별 인구 통계 자료를 얻을 수 없기에 정확한 인구 분포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지역 인구 오만 명중 오천 명이 무슬림이며 나머지는 기독교도라는 보도가 있었다(Republika, 4/1). 그 신뢰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자료는 이 후 여러 이슬람 단체와 종교 지도자에 의해 계속 이용되었다. 인구 통계 중 1971년 자료의 출처는 Pusat Penelitian Atma Jaya(1979)이며, 1995년 자료의 출처는 <http://www.websitesrcg.com/ambon>이다.

월에 발행된 콤포스(Kompas), 레뿌블리카(Republika) 수아라 뽀바루안(Suara Pembaruan), 자와 뽀스(Jawa Pos)의 기사와 2000년 1월과 2월에 간행된 주간지 가뜨라(Gatra)와 월간지 수아라 히다야툴라(Suara Hidayatullah)의 기사가 검토되었다.³⁾ 이 글의 주요 목적이 언론과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의 담론에서 말루꾸 사건이 어떻게 표상되고 해석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이 신문과 잡지로 한정되었으며, 이와 동일한 이유로 말루꾸 사건 자체의 배경, 원인, 전개 과정, 영향과 같은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II. 할마헤라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1999년 12월 말 할마헤라섬에서 발생한 기독교도와 무슬림 간의 충돌에 대해 주간지 가뜨라(Gatra)는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다. 1월 8일자 가뜨라紙에서는 할마헤라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말루꾸 지역에 대한 특집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1월 15일자 판에는 할마헤라 사건의 희생자 수에 대한 한 군수의 이야기만이 인용되어 있을 뿐이다. 1월 22일자 가뜨라紙는 일부 무슬림 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하드(jihad: 성전) 움직임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을 촉발시킨 할마헤라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2월 5일자 가뜨라紙의 기사 '할마헤라, 세 단계(Halmahera Tiga Babak)'에서는 할마헤라섬에서 1999년에 발생한 사건이 심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12월말의 사건에 대한 보도는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기독교도들의 경축일[성탄절] 다음 날, 북할마헤라道(kabupaten)의 세 개 郡(kecamatan)에서 규모가 더욱 큰 폭동(kerusuhan)이 또다시 발생했다. 인구 면에서 다수인 기독교도들이 자이롤로(Jailolo), 갈렐라(Galela), 또벨로

3) 레뿌블리카와 수아라 히다야툴라는 이슬람 단체에 의해 발행되는 일간지와 월간지이다. 콤포스, 수아라 뽀바루안, 자와 뽀스, 가뜨라는 이슬람의 색채를 띠지 않는 회사에서 간행되지만, 일부 인도네시아인들은 콤포스가 친가톨릭적 성격, 그리고 수아라 뽀바루안이 친개신교적 성격을 띠는 단체나 개인에 의해 발행된다고 이야기했다.

(Tobelo)에 있는 무슬림 마을을 공격했다. 머리에 빨간 천을 두르고 있던 주민들의 공격으로 인해 수 백명-다른 버전에 따르면 수 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갈레라郡의 군수에 따르면, 12월 28일부터 1월 4일까지 2084명의 무슬림이 사망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경은 이와 다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12월 26일부터 1월 7일까지 군경이 제시한 수치는 다음과 같다: 양측에서 907명 사망.

무슬림 희생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특성, 그리고 이 사건이 2000년 일 월 대 중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던 사건 중의 하나였음을 고려할 때, 가뜨라紙의 할마헤라 사건 취급 방식은 지나칠 정도로 간단하고 무성의한 것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을 직접 취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면, 다른 보도에서처럼 목격자 혹은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이러한 방식 역시 이용되지 않았다.

상당수의 중앙 일간지 역시 가뜨라紙와 유사한 보도 방식을 취했다. 희생자 수에 대한 정부, 고위 공무원, 군부, 그리고 몇몇 이슬람 단체의 발표나 성명은 빠지지 않고 보도되었지만, 희생자 수 이외에 대한 보도는 극도로 자제되는 경향을 보여서, 이들 일간지 역시 자체적인 취재를 통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으며, 목격자의 증언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는 할마헤라 사건을 규정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났다. 상당수의 신문과 잡지는 할마헤라 사건을 집단간의 갈등(konflik antarkelompok), 사라(SARA)⁴⁾의 뉴앙스를 갖는 폭동(kerusuhan bernuansa SARA), 주민간의 충돌(bentrokan antarwarga), 집단간의 싸움(pertikaian antarkelompok)으로 규정하였지만, 사건에 연루된 두 집단이 누구인지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언급했을 뿐이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인들이 두 집단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회적인 표현으로 인해 상황 자체가 왜곡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할마헤라 상황을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 신문 기사만으로 두 집단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기는 쉽지

4) 사라(SARA)는 종족(Suku), 종교(Agama), 인종(Ras), [이익]집단(AntarKelompok)을 의미하는 인도네시아 단어들의 頭文字語로서 수하르또 정권하에서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었던 네 분야를 지시한다.

않다.

대다수의 언론이 보였던 소극적인 취재 방식, 제한적인 자료의 이용, 은유적 보도 등은 할마헤라 사건이 갖는 특이성과 폭발력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취재나 현지인과의 인터뷰에 기초한 기사를 보도할 경우 두 집단 중 한 쪽 편을 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사건을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집단에 의해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결과가 발생하든지 간에 그 신문은 중립성과 객관성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간지와 잡지가 이러한 비난을 두려워했던 것은 아니었다. 일간지 레뿌블리카(Republika)와 몇몇 이슬람 잡지는 목격자들의 생생한 증언, 직설적 설명, 원색적 해설을 통해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다. 레뿌블리카의 1월 4일자 기사는 ‘세 마을이 공격당함, 여성은 강간당함, 할마헤라에서 하룻밤에 800명의 무슬림이 살해됨’이라는 원색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도네시아 종교지도자 위원회(MUI: Majelis Ulama Indonesia)의 말루꾸주 지부 부회장인 탐린(Tamrin)씨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사건 보도를 하고 있다.

“... 또벨로(Tobelo)에 살고 있던 거의 이 천명의 무슬림 주민이 살해당했으며, 4개의 마스지드(masjid)가 방화되었다. 郡단위의 종교성 건물(Kantor Urusan Agama)과 이슬람 색채를 조금이라고 띠고 있는 건물 중 거의 모두가 불에 타버렸다.”라고 그(탐린씨)는 말했다. ... “확실한 점은, 그들(기독교도)이 1999년 12월 26일, 금식이 끝난 이 후(해가 진 후) 또벨로市的 무슬림 밀집지역을 공격했다는 점이다.” ... [28일] 그들(트럭에 나누어 탄 기독교도)은 [무슬림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했다. “바로 이때, 밖으로 나온 [무슬림] 주민들이 살해당했다”라고 탐린씨는 말했다. ... 그들은 마스지드 안에 도피해 있는 사람들을 에워 쌓다. “이 후 그들은 마스지드에 휘발유를 뿌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산 채로 태워 죽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250여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다.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레뿌블리카紙는 증인들의 목격담을 인용하여 할마헤라 사건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이 후의 보도에서는 무슬림 피

해자의 대다수가 아이나 노인, 여성이었다는 점, 기독교도들이 극단적으로 모독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는 점⁵⁾, 기독교도의 공격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점, 군경의 대응과 언론 보도가 친기독교적이었다는 점 등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

수아라 히다야톨라(Suara Hidayatullah)라는 월간지 역시 레뿌블리카紙와 동일한 보도 방식을 보였다. 이 이슬람 잡지는 기독교도들의 잔인하고 비인륜적인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군경과 언론의 비중립적이고 편파적인 태도에 대해 비난의 칼날을 감추지 않았으며, 이 사건에 대한 단결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할마헤라 사건에 대해 언론이 보였던 두 가지 상반된 태도는 말루꾸州에서 발생하고 있는, 나아가 지난 4-5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던 무슬림과 기독교도간의 충돌을 바라보는 두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한 편에서는 종교도들의 충돌에서 나타났던 종교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기독교도를 비판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종교적 요인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충돌을 비종교적 요인으로 환원시켜 설명하려 한다.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설명이 3절에서 제시될 것이다.

III. 무슬림과 기독교도의 충돌을 바라보는 시각

경제 위기 이후 급증하였던 무슬림과 기독교도간의 충돌과 폭동은 압두라흐만 와히드(Abdurrahman Wahid) 정권 초기로까지 이어졌다. 폭동과 종교도 간의 충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이 제시되었지만, 대략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중 첫 째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흔히 거론되는 요인들이다. 즉, 경제적 어려움, 빈부 격차, 정치적 억압, 인권 유린, 불평등, 부패 등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불만과 좌절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감정이 폭동이나 집단간 충돌의 형태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보다는 덜 빈번하

5) 예를 들어 1월 15일자 레뿌블리카紙는 한 이슬람 단체의 주장을 인용하여, 기독교도들이 무슬림의 무덤을 파서 시신을 꺼낸 후, 그 입에 돼지고기를 넣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게 거론되지만, 미시적 수준에서 집합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이용되는 요인은 갈등을 증재할 세력의 부재이다. 억압적 정치 체계 하에서 도덕적 권위를 갖는 지도자가 성장할 수 없었고, 시민 사회가 자율적인 갈등 해결의 경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권위적 정부의 퇴진 이후 전개되는 개방적 국면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방종의 상황으로 간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 축적된 좌절과 불만이 폭동과 충돌로 표출되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대다수의 인도네시아인들 역시 사회정치적,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지도층의 담론에는 이 것들보다 더욱 빈번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요인이 있다. 즉, 특정한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군중을 선동, 폭동과 충돌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들의 핵심에는 음모와 선동에 놓여 있으며, 사회정치적, 경제적 요인은 군중들이 쉽게 선동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용된다.

음모론은 수하르토 통치기 동안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었으며, 수하르토 정권 말기에 발생한 폭동이나 집단간 충돌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용되었다. 최근의 음모론에서 보여지는 특이점은 군부, 정치가, 야당세력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이 설명들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다양한 집단에 의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음모론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는 집단 역시 다양하다.

수하르토와 군부는 야당지도자들에 의해 폭동의 배후 세력으로 거론되어 왔는데, 이들이 사회 혼란을 통해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이용되었다. 새로운 정권하에서도 수하르토와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퇴역, 현역군인, 정치인, 경제인들은 음모론의 배후 세력으로 계속 지목받았지만 (Aditjondro[2000]을 볼 것), 그 빈도는 줄어들었다.

수하르토 세력의 뒤를 이어, 특히 와히드 정권 출범이후 전면부 부상한 배후 세력은 자카르타의 정치인이다. 하지만, 사회 불안을 조장함으로써 정부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정부를 전복시키려 하는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자카르타의 정치인을 선동가로 지목했던 아민 라이스(Amien Rais)는 자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 정말로, 자카르타 사람들이 말루꾸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갇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 이들은 암본(Ambon: 말루꾸州의 주도이며, 동시에 이 주도가 위치한 섬의 이름)의 위기를 장기화시킬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잘 알려진 중요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오래 전부터 [정부에] 알려져 있다고 한다. 이들의 역할 역시 이미 명확하게 알려져 있다 (Republika 17/1).⁶⁾

메가와띠(Megawati) 부통령이 2000년 1월 암본섬을 방문한 직후, 자카르타 정치인을 배후로 하는 음모론은 다시 한 번 부각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메가와 띠의 방문 전날 말루꾸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점이었다. 국민협의회 의장인 악바르 탄쥁(Akbar Tanjung)은 한동안 소강 상태에 놓여 있던 말루꾸 상황이 그녀의 방문 직전에 변화였음에 의문을 표하고, 부통령의 방문을 훼방하려는 정치 세력이 이 사건을 계획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협의회 부의장인 수뜨라다라(Sutradara Ginting)는 보다 체계적인 說을 내세웠다. 그에 따르면, 메가와 띠가 암본을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정치 세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러한 주장과 함께 암본 문제를 해결할 그녀의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 세력은 그녀의 방문 직전 충돌을 야기함으로써 메가와 띠의 정치적 위상을 실추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Suara Pembaruan, 24/1).

세 번째로 거론되는 폭동과 충돌의 배후 및 음모가는 지역적 수준의 세력으로 그 실체가 보다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그 중 하나는 1950년대에 일어났던 南 말루꾸 공화국(Republik Maluku Selatan) 분리운동의 잔존 세력이다 (Jawa Pos, 14/1; Gatra, 5/2). 또 다른 음모가는 새로운 州로 격상된 北 말루꾸州의 주지사 선거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정치 파벌로서, 이 지역에 있는 세 명의 술탄 중 떠르나떼(Ternate)의 무다파르 샤(Mudaffar Syah) 술탄이 가장 빈번하게 지목되었지만, 그는 이러한 견해를 강력하게 부인하였다 (Gatra, 5/2).

네 번째로 거론되는 배후 및 음모가는 그 실체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회 불안과 혼란의 조장이라는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다. 지난 이삼년 동안 폭동이 있을 때마다 음모론을 제기했던 와히드 대통령 역시 이

6) 이러한 주장에 덧붙여 아민 라이스는 음모가의 리스트가 곧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와 관련된 어떤 발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說의 지지자이다. 그는 말루꾸인들의 삶을 깨뜨려 버리려 하는 사악한 손들(tangan-tangan jahat)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이들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국가 통합을 우선시한 정책 때문이었지만, 정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기에 이들의 정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그는 밝혔다 (Kompas, 16/1). 한 군장성은 이 세력이 마치 바람과 같아서, 이들의 존재를 매우 깊이 느낄 수 있지만, 이들의 실체를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는 언급을 했다 (Suara Pembaruan, 12/1).⁷⁾

배후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음모론이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이 집단의 존재를 보여줄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도층 인사들에 의해 이용되는 증거는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메가와 띠의 말루꾸 방문 직전에 발생했던 총들은 음모가의 존재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설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즉, 그녀의 방문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암본 사람들이 종교도간 총들을 일으키거나 그 것에 가담할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기간 유지되던 평화가 그녀의 방문 직전에 깨어져버렸음은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사주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고에 따르면, 우연이라는 말만으로 특정한 사건을 설명할 수는 없으며, 우연 이외의 다른 요인을 통해서 사건을 설명해야 한다.⁸⁾ 언론에 보도되는 다른 근거들 역시 이와 같이 우회적인 성격을 갖는다. 과거 암본이 무슬림과 기독교도의 평화로운 공존을 보여주던 대표적인 지역이었다는 점, 공격에 참여한 군중이 조직적인 행동을 했으며, 이들의 준비가 체계적이었다는 점, 대규모의 진압군이 투입되었음

7) 본문에 제시된 네 부류의 배후 세력 혹은 음모가, 특히 자카르타의 정치인들과 그 실체가 알려지지 않은 세력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으며, 이 說을 개진하는 사람들조차 상황에 따라 두 세력을 선택적으로 이용했다. 본문에서 이들을 명확하게 분리시킨 것은 논의의 전개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8) 이러한 설명 방식은 전통 자바 문화의 설명 방식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자바 농촌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인과 관계를 추적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길을 가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만 새 똥이 떨어졌을 경우, 쉽게 찾아질 수 있는 이유 혹은 우연(재수) 이상의 또다른 설명 방식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우연히'라는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우연을 필연으로 전환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했다.

에도 불구하고 폭동이 지속되었다는 점 등이 배후세력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로 이용되었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증거, 그리고 이러한 증거가 수용되는 방식 등은 외부인으로 하여금 음모론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도록 만든다. 게다가, 음모론이 유행하였던 지난 삼사 년 동안 배후 세력이나 음모가가 체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력이 지속되고 있음은 쉽게 이해될 수 없다.⁹⁾

이러한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을 하나의 단서는 음모론이 갖는 장점이다. 여론에 의해 강력하게 비판받지 않는 한 이 이론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방식으로 종교도간 충돌을 설명하고자 하는 집단에게 좋은 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질서와 안정을 회복시켜야 하는 정부에게 있어 이들 배후 세력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시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폭동이나 충돌을 전략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에게 있어 이들 세력은 편리한 레토릭이나 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음모론은 그 배후 세력이 쉽게 비난될 수 있지만, 그 실체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려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음모론의 또다른 장점은 종교도 간의 충돌에 개입된 종교적 요인이 전면에서 부상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은 최근의 충돌이나 폭동이 종교적 외관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갈등, 증오, 원한에 기인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개진해왔다. 폭동의 원인을 배후 세력이나 음모가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이들은 종교적 요인의 중요성을 격하시키고, 이를 통해 종교 분쟁이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축소시킬 수 있게 된다.

지난 몇 년 동안 음모론은 경쟁적인 설명틀의 부상을 저지하는데 성공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말루쿠에서의 충돌, 특히 할마헤라 사건은 이런 상황에 변화를 가져왔다. 무슬림이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할마헤라 사건은 대안적인 설명틀이

9) 음모가라는 혐의를 받는 사람을 경찰이 체포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음모가로 지목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며, 또한 이들은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거론되고 있는 국가적 수준의 인물이 아니었다. 음모가로 지목되었던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밝힌 사례에 대해서는 Achmad(2000)를 볼 것.

사회적 담론의 전면에 등장하고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새로운 설명들의 핵심은 할마헤라 사건, 나아가 지난 몇 년 동안의 폭동이나 집단간 충돌이 종교적 불만과 갈등에 기초하고 있는 종교 전쟁이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 종교 전쟁설이라 불릴 이 설명들 역시 경제적, 사회정치적, 종족적 요인을 거론하지만, 이를 종교도간 충돌의 핵심이기보다는 양념으로 취급할 뿐이다.

종교 전쟁설에 따르면, 할마헤라 사건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인도네시아인들을 기독교화시키려는 기독교도 전략의 일환이라고 한다 (Republika, 1/7; Suara Hidayatullah, 2/2000). 이를 위해 할마헤라의 기독교도들은 무슬림을 쫓아버리기 위한 혹은, 개발통합당(PPP) 당수인 함자하즈(Hamzah Haz)에 따르면, 무슬림을 대량살육(genocida)하기 위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한다 (Republika, 11/1). 지역적 수준의 원인으로는 말루꾸의 기독교도가 무슬림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과 혐오가 있다고 한다. 즉, 무슬림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자신들이 누려왔던 특권이 위협 당할 처지에 놓인 기독교도들이 무슬림에 대한 증오심을 폭력적인 형태로 표출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슬림에 대한 공격의 목적은 한 목사가 기독교도 군중을 향해 외쳤다는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교도들은 없어져야 하는데, 이는 [그들이 세상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네덜란드, 영국, 호주로부터의 도움이 있으니 두려워말고 계속 전진하라. 또벨로(Tobelo)[郡]를 제 이의 이스라엘로 만들자. 고루아(Gorua)마을의 이슬람 지도자들을 .. 산 채로 잡아야 한다 (Republika, 15/1).

이슬람을 증오하며 무슬림을 공격할 이유를 가지고 있던 기독교도들은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계획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한다. 이는 군중 동원 방식과 기독교도들이 사용했다고 믿어지는 무기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데, 무슬림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기독교도들은 공격 개시 며칠 전부터 특정한 장소에 집합해 있었으며 (Republika, 12/1), 자동화된 무기, 로켓, 폭탄과 같이 쉽게 구할 수 없는 무기를 수레로 날라야 할 정도로 많이 구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Republika, 5/1; Suara Hidayatullah, 2/2000).

종교 전쟁설에 따르면 기독교도들은 자기 종교도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언론과 군경, 지방 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공작을 폈으며, 그 결과 기독교도의 피해는 크게 보도되었던 반면 무슬림의 피해는 경시되었고, 기독교도들의 공격에 대해 군경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Republika, 13/1). 인도네시아 이슬람 지도자 연합회 말루쿠 지부에 따르면, 도지사가 군지휘관으로 하여금 무슬림에 대한 공격을 도와주도록 명령했으며, 군지휘관과 경찰책임자가 무슬림을 타지역으로 전출시켰고, 무슬림을 향한 발포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고 한다. 이러한 예들은 기독교도의 공격 준비가 체계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간주되었다.¹⁰⁾

기독교도들이 무슬림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나아가 인도네시아를 기독교화하려 한다는 종교 전쟁설의 핵심은 지난 수십 년간, 나아가 네덜란드 식민지 기간에도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Boland, 1982). 할마헤라 사건 이후 나타난 특이점은 몇몇 신문과 잡지가 공개적으로 이러한 시각을 지지했으며, 이러한 시각이 대중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하르토 퇴진 이후의 정치 및 언론 자유는 이러한 상황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슬림이 일방적인 피해자로 쉽게 비추어질 수 있는 할마헤라 사건의 특성 역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종교 전쟁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측면은 지난 20여년간 인도네시아 이슬람에서 일어난 변화이다. 종교 전쟁설이 수용되기에 적합한 사회적 분위기나 토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것이 사회의 공식적인 담론에 등장하고, 일반인들에게 쉽게 수용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지난 20여년간 인도네시아 이슬람에서 나타났던 변화를 통해 종교 전쟁설의 등장 배경을 검토할 것이다.

IV. 이슬람의 변화와 종교 전쟁설

197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무슬림 공동체내에서의 변화가 보다 뚜렷하게 감

10) 종교 전쟁설을 다루고 있는 몇 권의 단행본이 2000년 초반기에 출판되었다. 예를 들어 Al-Chaidar and Amnesti International (2000)과 Rustam (2000)을 볼 것.

지되기 시작했다. 이슬람 지식인층 사이에서는 과거부터 존재해왔던 율법주의, 전통주의, 개혁주의 경향과 대비되는 새로운 사상적 조류가 등장하여,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 세대와 경제적으로 부유한 층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확산시켰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슬람을 생활의 중심부에 위치시키려고 노력하는 무슬림의 양적 팽창이 보고되었다. 지식인층에서의 변화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누르폴리스 마지드(Nurcholish Madjid)와 와히드였다.¹¹⁾

정치에 대한 누르폴리스의 입장은 그가 유행시킨 슬로건인 'Islam, yes, Islamic party, no'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이슬람에 기초한 국가 건설이 경전에 근거하지 않은 교리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슬람을 정치화하려는 세력뿐만 아니라 이슬람을 율법의 체계로 환원시키려 하는 율법주의(legalism)에도 반대한다. 그에 따르면, 율법주의는 이슬람의 핵심인 이즈띠하드(ijtihad), 즉 합리적인 사고를 억누름으로써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한다.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 꾸란(Quran)과 하디스(Hadith)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경전중심적 경향 (Scripturalism)에 반대하여 그는 이슬람의 혁신(pembaruan)을 주창한다. 이슬람의 혁신은 그 세속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문제로 취급되었던 부분을 세속적으로 취급함으로써(sekularisasi),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함으로써(liberalisasi),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rasionalisasi), 근대적인 것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그것을 수용함으로써(modernisasi)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 이슬람 교리에 대한 형식적 해석보다 현실에 맞는 교리의 재해석을 강조하고, 성스럽지 않은 영역에서 종교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누르폴리스의 입장은 교리를 절대시하는 전통적인 이슬람 해석과는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와히드의 사상은 누르폴리스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와히드 역시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하며, 전통과 형식적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를 강조한다. 그가 제기한 이슬람의 토착화(pribumisasi Islam) 개념은 이러한

11) 누르폴리스와 와히드의 종교적 입장과 관련된 내용은 Barton (1991,1999), Malik and Ibrahim (1998), Nurcholish (1987), Ramage (1995), Wahid (1989)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관점을 적절히 대변해 주고 있다. 토착화란 율법 해석에 있어 지역적이고 현실적인 필요가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의 주장이 이슬람 교리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상이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무슬림 공동체에서 동일한 교리가 맥락적으로 해석되고 실천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꾸란과 하디스에 제시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종교 생활을 정화하려 하거나 율법학파에 의해 만들어진 해석에 집착하는 태도를 포함한 경전중심주의는 이슬람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와히드는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을 이슬람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이슬람 교리가 정치적이고 공적인 영역의 원칙으로 적용되는데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신근대주의(neo-modernism) 혹은 실재론(substantialism)이라 불리는(Barton, 1991; Liddle, 1996) 누르폴리스와 와히드의 시각은 지식인층,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 세대, 경제적으로 부유한 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향력을 확대시켰다.¹²⁾ 하지만 신근대주의가 확산됨으로 인해 경전중심적 경향이 축소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경전중심적 경향은 70년대 후반이래 일반인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이슬람 부흥, 즉 일상생활을 이슬람화하려는 노력의 확산에 편승하여 그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일상생활의 이슬람화는 일상 생활의 전 부문에서 이슬람 교리에 따라 행동하고 사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슬람이 하나의 종교로 성립된 이래 일상 생활의 이슬람화는 지속적으로 추구되었던 이상이었지만, 다수의 무슬림이 명목상의 무슬림이었다는 현실로 인해 쉽게 성취될 수 없는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슬람화는 성과 속, 혹은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슬람화의 초점과 범위는 사회정치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1980년대 이슬람화 노력은 다섯 차례의 기도(sholat), 금식(puasa), 금요 예배나 종교 강연회의 참여와 같이 개인적 수준의

12) 리들(1996: 280)에 따르면, 신근대주의는 종교적 믿음을 유지하면서도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해 주는 수단을 제공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고등 교육 기회의 확산에 따라 양적으로 팽창하게 된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한다. 아드난(Adnan) 역시 사회경제적 지위가 보장되는 직업을 원하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관심을 유지하려 하는 젊은층에게 신근대주의가 효과적인 타협안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1990:458).

종교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이슬람 부흥이 집중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했던 1980년대에 이슬람 단체의 정치적인 힘이 급속도로 약화되었음을 통해서도 예증될 수 있다.

신근대주의와 일상생활을 이슬람화하려는 노력은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이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유사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나타난 이슬람화 움직임은 신근대주의가 반대하는 경전 중심적 경향과 친화력을 갖게 된다. 이는 신근대주의자들의 논의의 이론적인 복잡성, 즉, 맥락적인 종교 해석을 강조하기 때문에 종교 교리에 대해 애매모호한 해석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신근대주의의 특성이 일반인들의 호응을 쉽게 끌어낼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¹³⁾ 따라서, 일상생활을 이슬람화하려고 노력하는 무슬림의 증가는 이슬람이 가르치는 데로 살아야 한다는 단순 명제를 내재화시키고, 이슬람적인 것과 비이슬람적인 것의 차이를 상대적이고 맥락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무슬림의 증가를 결과하게 되었다.

일상생활의 이슬람화 노력이 사회정치적, 종교적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상의 변화는 그 범위와 초점에 영향을 주게 된다. 1990년대 들어 무슬림들은 아래의 예에서 보이는 것처럼 개인적 삶을 뛰어넘는 사회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런 문제에 집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슬람에 우호적이지 않은 기사를 게재한 잡지사에 대한 공격과 폐쇄, 이슬람 단체들의 압력에 의해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진 교육법안과 이슬람 법원 위상 강화 법안, 대규모 시위를 통한 복권 철폐, 공립학교 학생의 질밥(jilbab: 여성들의 머리를 가리는 스카프) 착용 허용.¹⁴⁾

무슬림들의 집합적인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이슬람이 취급되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변화하였다. 이슬람의 교리나 이슬람 국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 그리고 주도적인 교리 해석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¹⁵⁾ 종교 자유가 통제되고 규제되어야

13) 리들(Liddle, 1996) 역시 신근대주의의 영향력 확산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그 논의의 복잡성을 지적하고 있다.

14)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형준(출판예정)을 참조할 것.

15) 하르모코(Harmoko) 前장관이 꾸란의 한 소절을 잘못 암송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그는 텔레비전에 출현하여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했다. 하루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Kim, 1998).

이슬람화의 범위가 점차 사회적 영역을 포괄하게 되고, 종교적인 문제가 무슬림 공동체라는 틀 내에서 집합적으로 취급되기 시작함에 따라, 기독교도에 대한 무슬림의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기독교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출판물이나 종교 모임을 통해 대중에게로 확산되었는데,¹⁶⁾ 이 시각은 기독교도들을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무슬림을 유혹하려 하고, 무슬림들의 유대를 약화시키려 하며, 나아가 무슬림 공동체를 파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기독교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는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기독교도와 달리 타종교도와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용적인 태도는 타종교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장려하며, 다원적인 종교관을 지지하는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¹⁷⁾ 하지만, 이슬람에서 가르치고 있는 관용과 화합의 정신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타종교도들이 무슬림을 존중하며 비방하지 않을 경우에만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 타종교도들이 적대적인 행위를 할 때, 무슬림은 힘으로써 대응해야 하며, 이들과의 투쟁에서 후퇴는 용납될 수 없다고 한다.¹⁸⁾

이슬람이 가르치는 관용과 대응의 원칙은 무슬림과 타종교도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느 편이 먼저 도발적인 행위를 했느냐 라는 문제가 핵심적인 것임을 보

3차례 기도해도 된다는 주장을 펴서 기소된 사람에게 종교 모독죄로 5년형이 선고되자 이에 분개한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킨 시투본도(Situbondo) 사건 역시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보여준다.

16) 기독교화는 1990년대 이슬람 잡지에서 가장 많이 취급되었던 문제 중의 하나처럼 보인다. 판지 마시이라캣(Panji Masyarakat)이라는 유서 깊은 이슬람 잡지의 경우 1991년 이래로 기독교화와 무슬림-기독교도 관계에 대한 특별 기사를 매년 한 차례 이상 게재하고 있다. 기독교화 문제는 미디어 닥와(Media Dakwah)라는 잡지에서 보다 빈번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이 월간지에는 기독교화 문제를 다루는 고정 칼럼이 존재하여 기독교 선교의 전략과 기독교화의 상황이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다. 미디어 닥와에 대해서는 Liddle(1996)의 분석을 참조할 것.

17) 이와 관련되어 빈번하게 이용되는 꾸란의 章 중의 하나는 알-까아피룬(al-kafirun)이다.

18) 이와 관련되어 수아라 히다야툴라(Suara Hidayatullah)紙가 제시하고 있는 꾸란의 가르침에는 알-바카라(al-Baqarah)章의 190-191절, 알-안파알(al-Anfaal)章의 15-16절이 있다.

여준다. 이 질문에 대해 기독교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무슬림들은 단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 나아가 네덜란드 식민지 시기에도 이종교도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협하는 행동을 시작한 측은 항상 기독교도였다는 것이다.¹⁹⁾ 기독교 인구의 증가는 이를 보여주는 근거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된다.

지난 30년간의 인구 통계를 볼 때, 기독교도 인구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1971년 6.7퍼센트(7,844,209명)였던 기독교도의 비율은 80년 8.8퍼센트(12,861,271명), 90년 9.6퍼센트(17,232,563명)로 증가하였다 (센서스 자료). 이러한 증가세가 무슬림들에 의해 문제시되는 이유는 1978년 사회성과 종교성 장관 명의의 규정안이 발표된 후, 공식적인 선교 활동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Kim, 1998b). 따라서, 자연 증가율을 상회하는 기독교도의 증가 추세는 비합법적인 선교 활동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기독교도의 증가가 무슬림의 개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비합법적인 선교 활동은 이슬람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도발적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기독교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확산은 무슬림과 기독교도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역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따르면 (Kim, 1998a), 무슬림과 기독교도를 분리하는 명확한 선이 형성되어 비종교적 영역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두 종교도들의 관계를 긴장과 불만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긴장 관계가 다른 지역에서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하여, 지난 몇 년간 기독교도와 교회를 대상으로 한 무슬림의 공격이 급증하였다 (Tahalele, 1998).

V. 맺음말

할마헤라 사건 이후 종교 전쟁설이 공적인 담론의 전면에 대두되고, 기독교

19) 할마헤라 사건을 바라보는 종교 전쟁설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앞 절에서 제시된 대로, 종교 전쟁설에서는 기독교도의 계획성과 의도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선제 공격을 했던 측이 기독교도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독교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화될 수 있으며, 무슬림에 의한 맞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일부 이슬람 단체에 의해 공공연하게 제기되는 상황은 지난 20여년간의 이슬람의 변화가 무슬림-기독교도의 관계, 나아가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슬람 부흥과정에서 나타났던 일상생활을 이슬람화하려는 노력은 그 초반기 개인적 믿음의 영역에 집중되어 전개되었지만, 점차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를 포괄하게 되었다. 보다 넓은 사회적 문제들이 이슬람적 관점에서 평가됨에 따라 무슬림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문제 중의 하나는 기독교도와의 관계였으며, 기독교도들이 무슬림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가설이 심각한 문제 제기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으며, 기독교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게 되었다. 기독교도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종교 전쟁설이 공식적 담론에 등장하고 일반인에게 널리 수용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은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당연시되어 왔던 종교도간의 관용이 무슬림과 기독교도의 관계를 특징짓는 단일한 특성이 아니며, 또한 종교도간의 화합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나 경제적 안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이슬람 부흥이 보고된 지난 20여년 동안 경전중심적 경향은 하나의 중요한 종교적 흐름으로 자리잡았으며, 경적 중심적 경향의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집합적으로 표출하고,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90년대에 일어났던 무슬림들의 집합적인 행동이나 종교 전쟁설의 등장과 같은 사례만으로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균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종교 전쟁설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담론의 중심부에 음모설이 자리잡고 있음은 경전중심적 경향의 확대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전중심적 경향의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간과되어서는 안 될 또다른 측면은 이슬람 부흥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짧은 역사로 인해, 일상생활을 이슬람화하려고 노력하는 무슬림 중 상당수는 전통적 세계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상대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syncretic)인 성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전중심적 경향을 갖는 무슬림들의 주장이 공식적 담론에 등장했음은 기독교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타의 정치경제적, 사회

적 영역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보다 뚜렷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임을, 그리고 향후 인도네시아 사회의 변화에 이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세력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간주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형준 출판예정 '인도네시아의 변화하는 이슬람과 국가'.
- Achmad F. 2000 *Jihad Sang Demonstran*. Jakarta: Pt RajaGrafindo Persada.
- Al-Chaidar and Amnesti International. 2000 *Bencana Kaum Muslimin di Indonesia 1980-2000*. Yogyakarta: Wihdah Press.
- Aditjondro, G. 2000 'Orang Maluku Mati di Tengan-Tengah.' *Jawa Pos* 27/January.
- Adnan, Z. 1990 'Islamic Religion: Yes, Islamic (Political) Ideology: No! Islam and the State in Indonesia', in *State and Civil Society in Indonesia* Arife Budiman (ed.). Clayton: Monash University.
- van Akkeren P. 1970 *Sri and Christ: A Study of the Indigenous Church in East Java*. London: Lutterworth Press.
- Anderson, B. 1965 *Mythology and the Tolerance of the Javanese*. Ithaca: Modern Indonesia Project, Cornell University.
- Barton, G. 1991 'The International Context of the Emergence of Islamic Neo Modernism in Indonesia', in *Islam in the Indonesian Social Context*. M.C. Ricklefs (ed.) Clayton: Monash Univeristy.
- , 1999 *Gagasan Islam Liberal di Indonesia*. Jakarta: Pustaka Antara.
- Boland, B.J. 1982 *The Struggle of Islam in Modern Indonesia*. The Hague: M.Nijhoff.
- Kim, H-J. 1998a 'Unto You Your Religion and Unto Me My Religion: Muslim-Christian Relations in a Javanese Village'. *Sojourn* 13(1).
- , 1998b 'The Changing Interpretation of Religious Freedom in Indonesia'.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29(2).
- Liddle, W. 1996 'Media Dakwah Scripturalism: One Form of Islamic Political Thought and Action in New Order Indonesia', in M. Woodward (ed.), *Toward a New Paradigm: Recent Developments in Indonesian Islamic Thought*. Arizona University Press.
- Malik and Ibrahim. 1998 *Zaman baru Islam Indonesia: Pemikiran Dan Aksi Politik* Abdurrahman Wahid, M. Amien Rais, Nurcholish Madjid, Jalaluddin Rkhmat. Bandung: Zaman Wacana Mulia.

- Mohammad, Z. 1979/80 'Hubungan Pemeluk Agama Katolik Dan Islam di Desa Ngawen, Muntilan', in *Agama, Budaya dan Masyarakat: Ikhtisar Laporan Hasil-hasil Penelitian*, Moeslim Abdurrahman (ed.), pp.173-178. Jakarta: Departemen Agama RI, Proyek Penelitian.
- Pusat Penelitian Atma Jaya. 1979 *Umat Katolik di Indonesia, Menurut Sensus Pemerintah dan Gereja: Tahun 1971*. Jakarta: Pusat Penelitian Atma Jaya.
- Rustam, K. 2000 *Konspirasi Politik RMS dan Kristen menghancurkan Ummat Islam di Ambon-Maluku*. Yogyakarta: Wihdah Press.
- Soemarjo. 1959 *Desa Tjandi, Kalurahan Purwobinangun: Sebuah Laporan Sosiografi Kecamatan Pakem, Daerah Istimewa Yogyakarta*. Yogyakarta: Universitas Gadjah Mada.
- Tahalele, P. 1998 *The Church and Human Rights in Indonesia*. Surabaya: Indonesia Christian Communication Forum.
- Wahid, A. 1989 'Pribumisasi Islam dalam Islam Indonesia Menatap Masa Depan', in Azhari M. and Saleh A. (eds.). Jakarta: Guna Aksara.
- 신문과 잡지 (2000년 1월 간행)
- Gatra, Jawa Pos, Kompas, Suara Pembaruan, Suara Hidayatullah, Republika.

Changes in Muslim-Christian Relations in Indonesia :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s of Maluku Incidents

Hyung-Jun Kim

This paper investigates two major frameworks proposed by the media and political and religious leaders to interpret recent Muslim-Christian clashes in Maluku. One de-emphasizes religious aspects in the clashes and explains these in non-religious terms, while the other stresses religious elements and condemns Christians for their maltreatment of fellow Indonesians. After these two frameworks are examined in the second and third section respectively, the fourth section will look at Islamic development for the last few decades in order to place the religious war theory into socio-religious perspective. With this, I will argue that the recent surge of the religious war theory in public discourses is in line with and is an expression of changes in Indonesian Muslim community. Seen from this perspective, peace and harmony among followers of different religions in Indonesia cannot be achieved by the solidification of democracy or by economic stability, but by continuing efforts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to decrease religious hatred.

<Key Words>

Indonesia, Islam, Maluku, Muslim-Christian Relations